

延邊 韓族의 定着過程과 初期 韓人社會*

- 19世紀 末에서 1920年代 初까지의 移民과 農業經營 -

全 海 宗

I. 머리말 - 특히 地域의 呼稱과 史料에 관하여

II. 本 論

1. 今世紀初까지의 韓人의 移住와 淸의 對策
2. 延邊 韓人들의 農業經營

III. 맺는말

I. 머리말 - 특히 地域의 呼稱과 史料에 관하여

먼저 延邊과 間島라고 하는 呼稱에 대하여 간단히 言及하여 두어야 하겠다. 지금의 延邊朝鮮族自治洲는 延吉·圖們·龍井의 3市와 延吉·敦化·琿春·和龍·汪清·安圖의 6縣으로 構成되고 있다. 延吉縣의 동쪽에 琿春, 북쪽에 汪清, 서쪽에 敦化, 서남쪽에 和龍에 安圖의 各縣이 있다.

間島는 延吉·汪清·和龍의 3縣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며 東間島 또는 北間島라고 하는데 安堵縣과 그 서쪽의 撫松縣 지방을 西間島라고 하였으며 넓은 뜻으로 間島는 東間島와 西間島를 合稱하여 때로는 琿春地方도 포함하였다. 延邊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하게 쓰였으며 間

*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

島나 延邊이 다같이 엄격한 뜻으로 쓰이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中華民國 때에 한때 延吉道라고 하는 地方區域을 두었었는데 그 區域은 지금의 自治洲 보다 若干 더 넓었다.

또 19世紀 後期에는 「가야河」 流域(汪清縣 지방), 北崗(그 서쪽), 南崗(延吉縣 南部), 西崗(和龍縣 地方)이라는 말이 쓰여졌고 또 豆滿江北岸의 地域을 동쪽으로부터 穩城間島·鐘城間島·會寧間島·茂山間島라고 불렀다.

19세기의 中期 즉, 1870年代 初期까지의 韓族의 滿洲移住 특히 延邊移住에 대하여는 筆者의 前稿 즉 「韓族의 滿洲(특히 間島) 移住에 대하여」¹⁾에서 그 大勢를 살펴본 일이 있다. 本稿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問題인 바 여기에서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移住에 관한 구체적인 史料, 특히 統計的인 史料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問題는 앞의 論文 즉 19世紀 中期까지의 移住問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같은 狀況이었다. 즉 移住에 관한 직접적인 史料가 없다는 점인데 그래도 補助的인 史料가 있었다. 그것은 19世紀 中期까지의 朝鮮王朝의 對外關係는 事大交隣이 주가 되었고 특히 中國과의 關係가 中心이었다. 따라서 延邊에 대한 韓族의 移住는 中國과의 關係에 속하는 것이므로 朝鮮의 官邊記錄에도 그에 관련된 記事가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韓族의 滿洲 특히 延邊移住는 民間에 있어서의 非合法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官邊의 記錄에 詳細히 記錄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非合法的인 移住가 發覺되어 朝鮮과 中國 간에 問題로써 제기되고 兩國의 交渉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官邊의 文書에 記錄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朝鮮王朝實錄>이나

1)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刊, <東亞研究> 第26輯(1993, 8月) 所收.

<同文彙考>에 보이는 것은 韓族 移住의 一面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9世紀의 後期가 되면 事情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朝鮮의 對外關係는 從來의 事大交隣의 局面에서 크게 變化하여 갔다. 國際의 政勢가 變化함에 따라서 朝鮮王朝의 中國과 日本과의 關係도 크게 變質하였고 또 中國, 日本 이외의 다른 歐美國家와의 關係가 複雜하여지며 이와 더불어 國內의 政勢도 多難하여졌다. 특히 중요한 事件만 列舉하면 1866년의 丙寅邪獄, 같은 해의 丙寅洋擾와 1871년의 辛未洋擾, 1875년의 雲揚號事件과 이에 이은 日本과의 修好條約, 美·英·獨 및 淸 등과의 通商條約, 壬午軍亂과 甲申政變, 巨文島事件, 東學革命 등 內憂外患의 連續이었고 淸日戰爭 以後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當時의 爲政者의 立場에서 民間人의 延邊移住는 비록 不法的인 活動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깊은 關心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 記錄도 남기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本稿의 敘述은 間接的인 記錄과 著作에 依據하여 概略을 살피는 데 그치려고 한다. 한편 淸의 地方의 官邊文書에는 本問題에 관한 資料가 比較的 많이 있다고 생각되나 그것을 충분히 利用할 수는 없고 뒤에서 言及하는 바와같이 中國 延邊의 出版物에 의하여 몇가지 그 資料의 例를 提示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다음에 史料 중에서도 특히 人口統計에 관한 問題다. 예를 들면 淸代의 人口에 대한 統計는 基本史料인 淸實錄과 大清會典에 보이는 數字가 큰 差異가 있다는 점이다. 地域이 넓고 近代에 있어서와 같은 國勢調査가 아닌 까닭으로 正確한 統計가 어렵다. 淸代의 人口가 1670년에 1,900萬, 1741년에 1억 4,300萬, 1764년에 2억 600萬, 1803년에 3억 100萬, 1821년에 4억으로 매우 急激하게 增加한 것으로 統計에 나타나

는 것은 調査의 未備와 또 虛僞報告(예를 들면 脫稅를 위한)의 結果일 것이다. 따라서 行政力과 治安이 未洽하였던 19世紀 後期와 20世紀 初의 延邊地方의 人口統計도 不完全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 記述하는 人口의 數字는 正確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問題의 接近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本 論

1. 今世紀初까지의 韓人의 移住와 淸의 對策

1870년경까지의 移住에 대하여는 앞에서 든 筆者의 論考에서 言及한 까닭으로 그 以後의 移住의 例를 살펴보겠다. 이들에 관한 記錄도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逃走하여 移住하였다가 淸側에 索出되어 刷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871年 5월에 差使員 金光雨 등이 咸鏡道 慶源·穩城·鍾城·會寧·茂山府 등에서 犯越한 逃民 454명을 間島로부터 데려오다가 途中에 逃亡한 자가 71명이며 데려온 逃民에게 糧米를 주고 生業에 從事케 하였다. 또 逃亡者가 發生한 점에 대하여도 差使員의 論罪를 保留한다고 하였다.(<H省錄> 辛未年 - 1871 - 5월 28, 7월 19일; <同文彙考> 原編續 犯越 3). 이 記錄에서 보면 犯越한 者에 대하여 論罪하지 않고 오히려 糧穀을 支給하였다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비록 「犯越」이라는 말로 그 不法性을 나타내고 있으나 刑罰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邊民들의 移住를 非公式으로 默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環境속에서 間島에 대한 移住가 盛行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移住하였다가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1876年 12월 咸鏡道 安撫使의 報告에 의하면 流民의 歸還者가 123名에 이른다고 하였다.(<日省錄> 丙子年 12月 21日). 이 記事로써 移民이 間島에서 定着한다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事實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비록 定着하였다고 하여도 여러가지 問題가 있었다. 特殊한 경우 이기는 하나 結婚하기 위하여 다시 咸鏡道에 들어와서 婦女를 掠奪하여 간 일도 있다. 1870年의 凶年으로 慶源府에서 러시아의 沿海州로 移住하였던 朴道松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八寸弟의 結婚을 위하여 1877年에 慶源府에 들어와 寡婦를 掠奪하여 갔다가 붙잡혀서 梟首刑을 당한 일이 있다 (<日省錄> 丁丑年 3月 3日).

1860年代로부터 韓人의 間島移住가 점차로 增加하였는데 1870年代에는 더욱 增加하고 80年代에도 그 傾向은 계속하였다. 이미 1869年 10월에 慶興府 阿吾地의 多數의 軍民이 江北으로 犯越하였을 때에 朝鮮의 朝廷에서는 禁制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日省錄> 己巳年 10月 21日), 실제로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移住하였다가 歸國한 자에 대하여 糧穀을 支給하는 일도 있었다. 咸鏡道の 流民은 가까운 接境인 間島와 沿海州 地方 뿐만 아니라 멀리 寧古塔 方面에도 이르렀다. 1882年의 記錄에는 咸鏡道の 邊民이 자주 凶年을 당하여 越江하여 逃亡하는 者가 十數年來로 繼續하여 近來에는 많이 琿春·寧古塔과 吉林省의 邊界에 移住하여 開墾 耕作하며, 또 러시아 境內에 와 있던 者가 임의로 淸의 領內에 來住하는 자가 적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日省錄>, <承政院日記>의 壬午- 1882, 光緒 7年 - 11月 9日 및 25日 등), 咸鏡道에서 間島方面으로 移住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領 沿海州에 移

住하고 沿海州와 間島의 來往도 거의 자유로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淸은 韓人의 移住에 대하여 從來와 같은 單純한 規制策이 實效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積極的인 對應策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對應策은 1880年代로부터 具體化되어 갔는데 그 方策은 대체로 세가지 方向에서 推進되었다.²⁾ 즉 첫째로 移民과 直接 關聯된 對策으로 「招民開墾」과 移住韓人을 淸의 國籍에 編入하는 問題다. 둘째로는 兩國間의 交易에 대한 對策인데 移住 韓人과도 關聯이 있으며 처음에는 朝鮮의 西北地方과 淸의 南滿洲地方에 있어서의 商民의 交易에 대한 措置가 主眼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間島地方에 있어서의 交易에 관하여도 擴大되었다. 세째로는 間島의 境界를 確定하는 問題다. 이들 세가지 問題는 그 하나하나가 兩國間의 重大懸案으로서 특히 첫째와 세째의 問題는 長期間의 論難의 對象이 되었었다. 이 세째의 問題는 本稿에서 言及하지 않으려고 한다.

첫째의 問題에 관하여 그 輪廓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둘째의 問題도 이와 關聯하여 言及하려고 한다. 淸은 1644년에 入關한 後 그들의 發祥地인 東北地方이 荒廢하여 가자 淸廷은 1677年(康熙 16年)에 이 地域을 封禁區域으로 정하고, 民間의 開墾, 採參, 伐木, 狩獵 등을 嚴禁하며 圍場을 설치하여 民間人의 出入을 禁止하며 異民族의 遷入을 嚴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滿洲의 荒廢가 심하여지고 한편 韓人 뿐만 아니라 漢人들의 移住가 急激하게 增加함에 따라서 淸政府는 邊防을 強化하는 同時에 財政收入을 增加하기 위하여 1875年(光緒 元年)에 奉天省 즉 지금의 遼寧省과 吉林省 東南部の 封禁令을 解除하기에 이르렀다.

2) 以下 淸의 對應策에 대하여는 주로 延邊人民出版社 刊, <朝鮮族簡史>(1986) p.3 이하의 敘述을 參考.

그리하여 다음 해에는 鳳凰直隸廳을 두고 그 밑에 安東縣을 設置하며, 이어서 興京廳을 두고 그 밑에 寬甸, 懷仁, 通化 등 여러 縣을 設置하는 동시에 撫民局을 두어서 「招民開墾」하기에 이르러 從來의 封禁策은 變하여 移民實邊策으로 바뀌었다.

또 東滿洲方面에서 1875년경부터 러시아가 琿春河의 南岸 等地에 여러 번 侵入한 것을 契機로 淸은 邊防을 強化하고 現地에서 糧食을 解決하기 위하여 점차로 「邊外」의 封禁을 解除하게 되어서 「移民實邊」策을 實行하였다. 즉 1880년에는 吉林將軍과 督辦은 靖邊軍을 編成하여 寧古塔·琿春 等地에 駐屯케 하고 南崗 즉 지금의 延吉·龍井을 中心으로 한 地域의 荒蕪地를 開墾하기 시작하였다. 1881년에는 「盛京東京間曠地開墾條例」에 따라서 琿春에 招墾總局을 두고 그 東쪽의 五道溝와 黑頂子, 南崗 等地에 分局을 두어 山東省에서 開墾民을 불러왔다. 드디어 1882년에는 敦化縣(現 延邊自治州의 一部)의 知縣은 朝鮮에서 온 韓人의 流移民을 開墾耕作에 從事하도록 許可하였다.

1882年 8월에 朝鮮과 淸과의 사이에 「韓淸商民水陸通商章程」이 締結되었는데 이 條約은 朝鮮과 中國의 오랜 傳統的인 兩國關係를 벗어나서 近代的인 關係를 시작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 意義가 있는 것인데 그 第5條에 鴨綠江 對岸의 柵門과 義州, 圖們江 對岸의 琿春과 會寧에서 邊民이 隨時로 來往하여 交易하는 것을 許可하며 또 그 第4條에서는 이미 開設된 交易場에서 交易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土地와 家屋을 賃借하고 建物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에 淸은 朝鮮과 「吉林과 朝鮮의 商民貿易에 관한 地方章程」을 議定하였다. 그리하여 和龍峪, 光霽峪(두 곳 다 現 龍井市 管內), 西步江(現 琿春縣 古城村)에 通商局의 分局을 두어서 朝鮮과 貿易을 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多年間의 懸案이었던 韓人에 대한 開墾

이許可되었고, 또 朝鮮과의 交易이 公的으로 행하여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보이는 敦化, 琿春, 延吉, 龍井 등지는 당시 韓人의 移住地가 많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다 現在 朝鮮族 自治州의 區域內에 있는 것이다. 1883년에 淸과 朝鮮은 「奉天與邊民交易章程」을 締結하여 南滿洲 地方에서의 韓人과의 交易을 公認하여 앞에 든 章程과 아울러 결국 滿洲 一帶에 걸쳐서 韓人과의 交易이 公認되게 되었다.

1885년에 淸은 드디어 封禁令을 廢止하고 圖們江 以北의 넓은 地域 즉 南北 700里(약 400km), 東西 4,50里(약 25-30km)를 專墾區로 하고 앞에 든 和龍峪, 光霽峪, 西步江의 通商分局을 越墾局으로 고쳐서 韓人 開墾民의 事務를 맡게 하여 韓人의 大舉 移住가 쉬워졌다. 越墾의 「越」은 封禁의 區域을 넘는다는 뜻도 있으나 그보다도 韓人이 國境을 넘어서 開墾한다는 뜻이 根本이라고 생각된다. 墾民들의 住居하는 區域을 墾荒社라고 하였는데 琿春 地域에 6社, 五道溝에 5社, 黑頂子에 6社, 南崗에도 6社가 설치었고 그밖에 圖們江 上流에도 39社가 設置되었다.

淸은 韓人에 대한 「招民試墾」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琿春寧古塔 招墾章程」을 公表하여 처음 5년간은 地組를 免除하고 그밖의 雜稅를 전혀 징수하지 않기로 規定하였다. 당시 一般 地租로는 每垧(약 2780坪)에 660文이었다. 1891년에 淸은 琿春의 招墾總局과 越墾局을 합하여 撫墾總局으로 改稱하여 南崗으로 옮기며 아울러 哈爾巴嶺(敦化의 東方) 以東의 넓은 地域도 그 管轄下에 둬으로써 韓人의 開墾에 의한 延邊의 開發이 더욱 촉진되었다.

當時의 延邊地方의 韓人의 戶口數와 開墾地에 관한 完全한 統計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不完全한 部分的 統計에 의하여 그 一部分을 들면 <表 1>과 같다.

<表 1> 1890年代 初 延邊各地 韓人 墾民의 戶口數와 墾地面積

年度	地 域	墾民戶口數	墾地面積(垧)	每戶平均墾地
1890	琿春黑頂子管内6社	853	2,541	3.0
1893	同五道溝管内5社	501	2,417	4.8
1893	琿春 및 南崗管内10社	520	4,407	8.5
1894	和龍峪管内 4堡 39社	5,990	2,395	0.4
合計		7,864	11,760	1.3
備考: 1. <東三省政略>邊務 4, 延邊報告 第4輯에 根據하여 平均과 合計를 算出. 2. 1垧은 약 2,780坪 3. 和龍峪管内에는 漢族墾民 264戶의 墾地를 合하여 그 墾地面積 「2,501垧」으로 記述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106垧 (264×0.4)를 減한 數로 韓人墾地로 推定함.				

위의 <表 1>을 살펴보면 이들 여러 地域의 韓人 墾民은 合 7,864戶이며 그 중의 4分の 3이 和龍地方의 39社에 居住하고 있었고 琿春과 南崗의 10社 管内에는 全體의 10分の 1도 못되었다. 이것은 後日의 韓人의 居住地가 南崗 管内 즉 龍井·延吉 등이 絶對 多數를 차지하며, 和龍이 가장 적은 것과 對照가 된다. 戶當 耕地의 比率을 보면 琿春과 南崗 管内가 平均 8.5垧으로 가장 많고 五道溝나 黑頂子 管内가 4.8 또는 3垧이며, 和龍은 南崗의 20分の 1도 못된다. 이것은 和龍地方이 豆滿江 上流로서 韓人들이 쉽게 渡江移住할 수 있었으나 平野가 적어서 開墾이 쉽지 않았으므로 後에는 南崗地方을 選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韓人의 總戶數는 8千戶에 가까워 그 人口는 1890年代 初에 이미 近 4萬名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上記한 各社의 統計에 누락된 韓人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1880年 以前에도 淸에 歸化한 韓人이 적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당시 延邊地方에는 더 많은 韓人이 居住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85年 封禁이 解除된 以後 韓半島로부터의 移住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沿海洲 地方에 居住하였던 韓人들도 大量으로 東滿洲와 東北滿洲(즉 延邊 北쪽)으로 來往하였고, 南滿洲에 居住하던 韓人들도 一部 延邊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1910年 8月에 日帝가 韓半島를 强占한 후에는 韓半島에서 流入하는 韓人의 數가 더욱 增加하였다. 統計에 의하면 1894年 경에 약 4萬이었던 韓人이 1909年 에는 34,133戶, 184,867人으로 增加(<延吉廳同知呈所管各事宜選具清冊> p.11)하였으니 15年동안 年平均 近 1萬人이 增加하였었다. 그리고 1910年 9月 이후 1911年 말까지의 1年 數個月 사이에 무려 1萬 9千 여명이 增加하여 (같은 책 p.88) 延邊의 韓人 總人口는 20萬을 넘게 되었다.

다음에 1880年代로부터 1920년까지의 滿洲 全域과 延邊(間島·琿春 地方)의 韓人 人口數를 <表 2>로 提示하겠다.

<表 2> 滿洲 全域 및 延邊의 韓人 人口(1881-1920) (單位: 1萬)

年 代	A: 滿洲全域	B: 延邊(B:A %)	C: 延邊	備 考
1881	1.0	-	-	B는 上述의 推定
1894	6.5	4.0 (61.5)	-	
1904	7.8	-	-	
1907	-	7.3	7.1	
1908	32.4 ?	9.1 (73.4)	8.9	A는 12.4의 誤
1909	-	9.8	9.9	
1910	-	11.0	11.0	
1911	-	12.8	12.6	
1912	23.8	16.3 (68.1)	14.3	
1913	25.2	18.2 (72.2)	16.1	
1914	27.1	19.8 (73.1)	17.8	

1915	28.2	20.3 (72.0)	18.2	
1916	32.8	20.3 (61.9)	19.6	
1917	33.7	23.1 (68.5)	-	
1918	36.2	25.4(70.2)	-	
1919	43.1	27.9(64.7)	-	
1920	45.9	28.9(63.0)	-	
1930	60.7	38.8(63.9)	-	
1940	114.5	-		

비고: A는 李塚珍, <中國안의 朝鮮族>(서울,1988)p.20(中·日의 諸史料에 근거), B는 井上 學,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0호, 東京,1973) p.37(日本の 諸史料에 근거), C는 桑原八司 <間島要覽>(서울, 1918) pp.7-8 (本書의 著者는 日帝總督府의 高級官吏라고 믿어지며 1917年 9月末 10月初에 現地를 視察하고 本書를 敘述).

<表 2>의 B와 C의 延邊人口는 多少의 差가 있으나 大同小異하다. 延邊의 韓人 人口는 滿洲全域의 70% 内外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912年 以後의 増加에 關하여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韓人의 移住와 關聯하여 일단 移住하였다가 다시 歸國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은 注目할 일이다. 1914년부터 3年간의 그 數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上記 <표 2> 備考의 C의 著作 pp. 6-7).

<表 3> 1914年- 1916年間 移住者數 및 歸鄉者數

年 別	移住者 數	歸鄉者數(對 移住者 比)
1914	5,289	1,738 (32.9%)
1915	4,744	1,093 (23.1)
1916	4,631	1,343 (29.0)

위와같이 歸還者가 해마다 4分の 1에서 3分の 1에 이른다는 것은 延邊에서의 定着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15年과 다음 해에 歸還者가 減少한 것은 咸鏡道에 큰 水害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한편 1917年의 延邊 在住者를 民族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위의 <表 2> 備考의 C p.7)

<表 4> 1917年 延邊 居住者의 民族別 構成

韓國人	195,611인 (79.9%)
中國人	48,466 (19.8%)
H 本人	616 (0.3%)
計	244,693 (100%)

이와같이 延邊人口의 5分の 4가 韓人이고 中國人이 약 5分の 1, H 本人은 극히 少數였다. 한편 參考로 言及하면, 그보다 10여年 후에는 間島의 韓人 약 35萬, 琿春의 韓人 약 4萬, 中國人은 두 곳을 합하여 약 15萬(咸鏡北道 編 <咸北要覽 附間島琿春> 서울, 1929, p.171)이라고 하여 中國人의 增加率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延邊 韓人들의 農業經營

本節에서는 19世紀 後半에서 20世紀 初에 걸친 時期의 延邊 韓人의 分布의 概況과 農業經營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다. 물론 20世紀에 들어 와서는 H帝에 對抗한 獨立運動과 軍事活動, 中國의 官邊에 대한 抗爭 등도 韓人들의 重要한 活動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韓人의 定着過程에 있어서의 居住地와 그 分布에 관하여 詳細히 敍

述할 資料가 없으므로 그 概況을 살펴보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앞에 表 1에서 敍述한 바로서 韓人 墾民의 數는 和龍地方이 가장 많고 南崗이 가장 적었으나, 墾地의 面積은 琿春과 南崗 管内가 가장 많고, 和龍이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후에는 南崗地方이 韓人들이 가장 많이 集結하는 地域이 되었다.

1907年の 間島 訪問記錄에 다음과 같은 敍述이 있다. “茂山, 會寧, 鍾城, 穩城의 豆滿江 對岸의 幅 4km의 住民은 다 韓人으로서 淸人은 거의 없고, 그보다 더 멀리 들어 가면 淸人의 居住地가 있으며 20km 정도의 地點에 가면 韓人이 2/3, 淸人이 1/3, 35km 내외에서는 韓人과 淸人이 半半이고, 60km의 곳에 있어서는 韓人이 1/3, 淸人이 2/3의 比率이라고 보면 大差가 없을 것이다.”³⁾

韓人과 中國人の 人口數와 韓人의 比率을 들면 다음과 같다.⁴⁾

<表 5> 韓人, 中國人の 人口數와 比率

年 度	韓 人	韓人比率	中國人	計
1912	163,000	76.9%	49,000	212,000
1916	203,426	77.0%	60,896	264,322
1918	253,961	77.8%	72,602	326,563
1921	307,806	80.7%	73,748	381,554

위의 數字를 보면 韓人의 人口가 年次的으로 增加하였음은 물론이고, 全人口에 있어서의 比率도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各縣別의 韓人의 戶數와 人口數를 보면 1920年代 以後에는 延吉

3) 牛丸潤亮 編, <最近間島事情> (서울, 1927) p.73. 이것은 물론 극히 概略의인 敍述이기는 하나, 이 記事에 이어서 鍾城間島 12社 등의 韓人 墾民의 具體的 戶數를 記錄하고 있다.

4) 같은책, p.122에 의하여 比率을 算出

縣이 가장 많고 和龍縣, 琿春縣, 汪清縣의 順인데 1923年의 例를 들겠다.⁵⁾

<表 6> 1923年 各縣別 韓人의 戶數와 人口數

縣 名	戶 數	人 口 數	全人口에 對한 比率
延吉	27,545	150,535	46.6%
和龍	19,051	111,777	34.6%
汪清	4,556	26,010	8.0%
琿春	6,753	34,906	10.8%
計	57,905	323,228	100.0%

이것은 앞의 表 1에서 보는 바와같이 1890年代 初에 和龍峪 管內의 戶口가 특히 많고 南崗 管內가 적었던 것과 극히 對照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韓人의 農業經營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稻作⁶⁾에 關하여, 다음에 一般農業에 關하여 敘述하겠다.

延邊地方의 稻作에 關하여는 이미 渤海時代에 있었다는 것이 <新唐書> 同傳에 記錄되어 있다. 近代에 있어서의 延邊의 稻作은 8.15 以前에는 오로지 韓人에 의하여 行하여졌으며, 漢人의 稻作活動은 겨우 그 후에 시작된 것이다.⁷⁾

韓人에 의한 稻作은 19世紀 中期에 南滿洲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1846년에 이미 琿江 流域, 1861년에 安東에서, 1875년에 通化地方에

5) 같은책 p.124 以下 이 記錄에는 男女別로 人口數가 記錄되어 있으며 대개 男子 人口가 女子 人口보다 10% 内外로 더 많은데 그 까닭은 男子가 單身으로 移住한 境遇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稻作에 關하여는 주로 黃今福「淺談近代延邊地區的水田開發」(<延邊歷史研究> 第 1輯, 延吉 1986 p.195 以下)과 위에 든 <朝鮮族簡史> (pp.9-11)를 參照하였고 그밖에 資料에 대하여는 따로 註記하였다.

7) 吉林과 東北滿 以外の 地域에서는 漢人의 稻作도 있었으나 그 比率은 대체로 10%에서 30%에 不過하였다. <最近間島事情> p.369.

서 水田을 開發하였고 1880年代 東邊道(遼寧省 東南部の 20縣)地方에 널리 行하여 졌다. 한편 延邊에서도 1868年 경에 豆滿江邊에서 시작하여 1900年 경에는 海蘭江邊에 널리 行하여 졌다. 1911년에는 琿春縣에 隣接한 東寧縣의 14개 村落의 韓族 400戶가 共同으로 1900畝의 水田을 開發하였으며 同時에 水利事業도 추진되어 1906년에는 延吉縣에서 33畝의 水田을 灌溉할 수 있는 1300여 미터의 水渠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에 間島 3縣(즉 東間島)의 水田 總面積은 8,000町步 즉 약 9,000畝⁸⁾이며 그 半 정도가 水利灌溉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水利事業은 1906年에서 1924年까지 19年間에 4,000餘 町步의 灌溉工事が 이루어졌다고 한다.⁹⁾

韓人들이 滿洲로 移住한 主要한 原因의 하나가 滿洲에 있어서의 單位面積當 收穫量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咸鏡北道와 延邊의 生産量을 다음에 적어 보겠다. 水稻의 生産量과 더불어 大豆의 生産量을 記述하는 까닭은 1882年の 記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表 7> 1882年 畝當生産量 (<延邊歷史研究> 第 1輯 p.199)

水稻	咸北 0.92石	延邊 1.14石(24% 많음)
大豆	咸北 0.61石	延邊 0.87石(43% 많음)

<表 8> 1917年경 每反步當 生産量 (<間島要覽> p.36)

水稻	咸北(平均) 0.619石	延邊(試驗生産) 1.46石(136% 많음)
大豆	咸北(平均) 0.67石	延邊(試驗生産) 1.714石(156% 많음)

8) 1町步는 3,000坪, 1畝(15畝)는 東北에 있어서 약 2,780坪.

9) <最近間島事情> p.358.

1882年과 1917年 經의 生産量이 延邊이 많은 것은 다 같으며, 특히 1917年의 延邊生産量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試驗生産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882年의 統計는 信憑性이 적다.¹⁰⁾ 또 延邊의 水田의 收穫量에 대하여 町步當 1912년에 5-6石, 1923년에 11石, 1926년에 13.5石으로 增加하였다고 한다.¹¹⁾

稻作의 年度別 總生産에 대한 統計는 쉽게 찾아볼 수 없으나 水田의 總面積과 單位面積의 生産量을 比較하면 알 수 있다. 다음에 水田面積의 年度別 增加를 記錄하겠다.(〈延邊歷史研究〉 第 1輯, p.203)

<表 9> 水田面積의 年度別 增加 (單位: 町步)

年度	水田面積	年度	水田面積
1906	12.6	1919	3,608.7
1912	185.0	1922	6,605.8
1917	764.2	1924	7,787.4
1918	1,458.8	1926	8,185.4

이에 따르면 1912년에 1千石에 未達하였던 것이 1922년에는 7萬石(町步當 11石)을 超過하게 되었다.

다음에 一般 農業經營에 關하여 살펴보겠다. 延邊의 1917年경의 耕地面積은 다음과 같다.(〈間島要覽〉 pp.21-22)

10) 1 畝는 185.5 坪이며 1反步는 300坪으로 1882年의 畝當 生産量이 咸北의 境遇에 1923年경의 反步當 生産量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은 의심스럽다. 1920年代에는 統計도 比較的 正確한데 1882年 즉 稻作의 初期의 統計에 問題가 있는 것 같다.

11) 〈延邊歷史研究〉 第 1輯, p.203에 1912, 1923, 1936년의 水田 町步當 收穫이 <表 5>로 記錄되어 있으나 典據도 表示하지 않고 있다.

<表 10> 1917년의 地域別 耕地面積 (單位: 町步)

地 域	耕地面積
會寧間島	8,543
鍾城間島	7,384
穩城間島	9,202
그 밖의 地域	65,413
計	90,542

이 統計에는 未墾地가 16萬 町步가 있다고 指摘되어 있으므로 耕地는 그 후 每年 增加하였다.

既耕地에 對한 韓人所有와 中國人 所有의 比率을 1926年 6月의 統計에 의하면 (<最近間島事情> p.307)

<表 11> 民族別 既耕地 所有狀態

縣 別	既耕地(町步)	韓人所有(%)	中國人所有比(%)
延吉	110,425	56,317 (51)	49
和龍	32,666	22,540 (69)	31
汪清	31,220	5,932 (19)	81
琿春	15,799	5,688 (36)	64
計	190,110	90,477 (47.6)	52.4

이와같이 耕地面積의 半에 가까운 部分을 韓人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當時의 延邊 總人口 436,306人 中 韓人은 351,727人(80.6%)이며, 韓人 農業者는 31萬 5千人이며, 每人當 平均 0.29町步 즉, 860坪 정도의 耕地를 所有하고 있었다. 따라서 韓人의 小作農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韓人의 全農戶와 地主 및 自作農의 農戶의 數를 中國人

의境遇와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같은 책 p.308)

<表 12> 各縣에서의 民族別 農業經營 形態

縣 別	韓人農戶	同地主 및 自作農戶	中國人農戶	同地主 및 自作農戶
延吉	24,503	14,360	4,106	3,414
和龍	18,278	9,239	657	499
汪清	4,779	1,786	2,146	1,586
琿春	5,231	2,270	2,100	1,900
計	52,791	27,655(52.5%)	9,009	7,299 (81%)

위에서 보면 韓人은 겨우 半 정도가 地主 및 自作農인데 中國人은 80% 以上이 그러하였고, 그 앞의 表와 아울러 생각할 때, 韓人은 2萬 7千餘戶가 9萬 町步의 土地를 所有하여 戶當 平均 3.27町步이며, 中國人은 7千餘 戶가 약 10萬 町步로 平均 13.65町步가 되어 戶當 韓人의 4倍 以上이 된다.

한편 韓人과 中國人의 地主·自作農·自作 및 小作農·小作農의 比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같은 책 p.308, 但 比率의 計算에 錯誤가 많으므로 筆者가 再算出)

<表 13> 民族別 農業經營 形態 比較

形態 \ 比率	韓人戶數(比率)	中國人戶數(比率)
地主	4,003 (7.6)	4,156 (46.1)
自作農	19,324 (36.6)	2,953 (32.8)
自作 및 小作農	11,951 (22.6)	662 (7.4)
小作農	17,513 (33.2)	1,238 (13.7)
計	52,791 (100.0)	9,009(100.0)

이 表의 地主와 自作農을 合한 比率(44.2%)이 앞의 表의 比率(52.5%)보다 적은데, 앞의 表에서는 「自作 및 小作農」의 一部가 잘못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中國人の 경우에도 그렇다. 韓人은 自作 兼小作農과 純 小作農이 3萬戶(55.8%)인데 대하여 中國人은 겨우 1,900戶(21.1%)에 지나지 않는다. 또 韓人 小作農의 4割 즉, 약 7千戶는 中國人 地主의 小作農家였다. 中國의 官邊과 中國人 地主들의 韓人에 대한 強迫과 誅求는 매우 심하였다. 다음에 몇가지 예를 들겠다. (以下 主로 <朝鮮族簡史> p.11 以下에 依함). 1883년에 淸은 封禁을 解除하는 反面에 韓人에 대하여 淸에 歸化 入籍을 強要하여 不應하면 土地와 財産을 沒收하고 境外로 逐出하기도 하였다. 또 胡服의 着用을 強要하여 韓人은 家內에서는 韓服을 입고 있다가 外出할 때나 中國 官憲이 나타나면 胡服으로 갈아 입었다. 1907年 3月의 調査에 의하면 當時 韓人의 2割 정도는 러시아領에서 移住한 사람들로써 그들은 半洋服이나 韓服을 입고 있다가 半數 가량은 淸 地主의 小作人이 되기 위하여 辮髮胡服 또는 辮髮白衣를 입게 되었다.

1902년에 淸은 延吉廳을 두어 民政을 管掌하고 各地를 巡察한다는 名目으로 派兵하여 徭役, 招宴을 強要하고, 無償으로 燃料을 徵發하고 주저하는 사람을 逮捕하며, 財産과 食糧을 要求하며 掠奪하고 殺傷 放火하는 일도 많았다. 官府는 地方官吏나 土豪와 結託하여 土地를 測量하지도 않고 四至만 表示하여 그들에게 土地를 所有케 하였다. 1890년에 珲春에서 延吉로 移住한 韓某는 官과 結託하여 1千餘垧의 土地를 占有하였고, 1905년에 珲春의 潘某는 2千垧을 占有하였다. 이들을 「占山戶」(山같이 많은 土地를 차지하는 戶)라고 하였다. 韓人은 歸化入籍하거나 또는 韓人의 名義로 土地를 買入하되 30日耕(1日耕은 약 400坪)의 價格이 3,600弔(官幣), 手續費 500弔를 支拂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占山戶가 官에서 370H耕 즉 12倍의 土地를 買收하는 金額과 같았고, 그뿐만 아니라 名義上의 地主에게 土地의 1/10을 提供하여야 하였다.

小作料는 年收의 3割에서 5割이며, 定額小作料인 境遇에서 豊凶을 막론하고 3割에서 4割 정도였으며, 地主가 超過로 收奪하기도 하고 隨時로 勞動力을 提供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韓人 農民이 水田을 耕作하고 耕牛를 使用하는 境遇에 水利稅, 養牛稅, 雇傭稅(雇傭된 사람이 負擔하는 稅), 人頭稅, 烟筒稅, 入籍費, 移轉證明費 등등을 負擔하여야 하였다.

穀物別 每年 收穫高에 관한 統計는 찾아 보기 힘들으나 1931年의 統計는 다음과 같다.(在間島日本總事館 編 <間島事情梗概> 龍井, 1932, pp.12-13) 縣別의 數量은 省略하고 合計만 敘述한다.

<表 14> 1931年 穀物別 收穫量

穀 名	收穫量(單位: 千石)
大豆	940
粟	763
玉蜀黍	190
大麥	151
蜀黍	87
小豆	54
黍	42
稗	38
甘藷	20,707(千貫)
벼(나라)	198(千石)
菜豆	89(千石)
麻	237(千貫)

以上에서 보면 大豆와 粟, 甘藷의 生産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麻, 稻, 玉蜀黍, 大麥이었다. 參考로 當時의 家畜數를 적겠다.(같은책, p.13)

<表 15> 1931年 家畜保有 現況

保有狀態 \ 畜名	家畜數	戶當保有數
牛	63,242頭	每農戶平均 1頭弱
馬	13,361	5戶當 1頭
羊	4,217	18戶當 1頭
山羊	1,082	
豚	134,505	1戶當 2頭
鷄	213,955	1戶當 3強
당나귀	4,742	17戶當 1頭
노새	1,695	

1926年の 統計로 延邊에서 韓國의 稅關을 通하여 韓半島에 輸出한 穀物의 數量과 價格을 다음에 적는다.(〈最近間島事情〉 p.424.)

<表 16> 延邊에서 韓國으로의 穀物輸出量과 價格

穀 名	輸出量	價 格
벼 및 나라	2,066석	45,704 圓
粟	136,975	1,628,723
大麥 및 裸麥	3,752	27,202
黍	13,247	185,086
大豆	414,675	4,541,893
小豆	26,694	313,522
白豆	46,608	402,517
其他	약 3,640	약 39,250
(小麥, 蜀黍, 玉蜀黍 等)		
計	646,410	6,229,850

輸出量과 金額에 있어서도 生産量과 같이 大豆와 粟이 가장 많았었다.

農土의 價格에 대하여는 1925年 7月의 調査가 있다(<最近間島事情> pp.143-145). 이 調査는 水田과 旱田으로 나누고 市街地・市外 10km의 地域・奥地의 셋으로 區分하고, 각기 上等・中等・下等으로 區分하였는데 여기서는 中等의 農土의 價格만 記述하였다. 上等은 中等보다 약 3割에서 5割정도 高價며, 下等은 中等보다 약 3割에서 5割 정도 低價다. 地價 외에 11%에서 15% 정도의 手數料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手數料를 합한 價格만 적었다.

<表 17> 土地 等級別 地價

農土의 等級	反(300坪)當 價格
市街地의 旱田	59,694圓
市外 10km地域 旱田	30,057
奥地의 旱田	11,520
市街地의 水田	67,020
市外 10km地域 水田	55,920
奥地의 水田	18,957

手數料는 鄉長契의 費用, 財務處 附加稅, 同名義收書料, 每垧當 登記料 등이다.

圓貨의 價値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에 몇가지 예를 들겠다. 1920年에 移住한 韓人의 出身道別, 戶別 平均 所持金은 다음과 같다. 咸北 278圓, 平北 112圓, 京畿 159圓, 忠北 83圓, 慶北 82圓, 全北 25圓, 러시아領 126圓으로 대체로 隣接地域은 약간 많았으나, 많은 경우에도 그 所持金으로 奥地의 旱田을 1坪이나 最高로 2坪을 살 수 있었을 것이

다. 1917年の 龍井의 物價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間島要覽> pp.84-86) 粟(精) 1石 12圓, 同 보통 3圓, 大豆 5.4圓, 收入米(精) 28圓, 延邊米(精) 15.30圓, 廣木 1匹 13圓, 麻 1匹 1.5圓, 梨 1斤 35錢, 명태 1마리 2錢, 鯖漁 1마리 4錢 등으로 穀物 등 生必品の 價格은 比較的 低價였다고 할 수 있다. 延吉(局子街)의 物價는 龍井보다 대체로 약간 비싸다. 또 日貨 1圓은 吉林省의 官幣 12兩 정도였으나 騰落이 심하였다.(같은책 p.107.)

III. 맺 는 말

이상으로 1800年代 末期에서 1920年代 初에 延邊으로 移住한 韓人들의 農上開墾, 水田開發과 一般 農業經營에 關하여 統計數字를 들어서 그 大勢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衣食住 生活와 鄉村生活, 文化 藝術生活에 대하여는 戰後에 朝鮮族이 出版한 著述에 敍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言及을 피하려고 한다. 그들 著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延邊人民出版社에서 刊行된 <朝鮮族簡史>는 특히 그 7章의 「朝鮮族的文化」에서 教育事業, 文學藝術, 宗教信仰, 風俗習慣에 關하여 敍述하고 있다. 이 책은 韓國語版도 出版되었다. 黃有福 著의 <中國朝鮮民族研究>는 沈陽市에서 1989년에 出版되었는데 朝鮮族의 宗教問題, 家屋建築, 家庭生活, 服飾, 民間舞蹈, 民間信仰 등을 다루고 있다. 教育史에 關하여는 朴奎燦 등이 쓴 <延邊朝鮮族教育史考>가 1889年 長春에서 出版된 바 있으며 李塚畛이 쓴 <中國 안의 朝鮮族 - 教育制度를 中心으로 - >는 서울에서 1988년에 出版되었다.

1926年の 延邊 韓人 35萬 2千人的 90%에 가까운 수가 農民이었고 그밖의 2萬 1千인이 商業에 從事하고 남은 1萬 5千餘가 雜業에 從事

하였다고 한다(<最近間島事情>, p.307). 當時 韓人의 商業活動은 草創期였으며 積極的인 活動은 그 以後의 일이다. 雜業에 從事하였다고 分類된 가운데는 敎育과 文化事業에 從事하는 사람, 宗教人, 啓蒙運動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獨立運動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延邊 韓人의 약 4%에 해당하는 이들이 活動에 대한 考察은 關心의 對象이 될 수 있다. 물론 滿洲 특히 間島에 있어서의 韓人의 獨立運動에 관하여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왔으나, 延邊 韓人에 대한 研究로서 이들 4%의 韓人에 대한 研究도 있어야 하리라고 믿는다.